

“공군 비행센터 해외 설치로 비행훈련 소음문제 해결을”

민주당 민행배 의원 인터뷰

무안 이전 가장 큰 걸림돌 ‘소음’ 해외 공군기지 임대 훈련 제한 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과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 31사단도 전남으로 이전 필요



민행배 의원

서 180억 정도 소음 피해 보상이 나가는 데 이것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공항 소음문제로 수년째 교착상태에 빠진 무안공항 통합문제를 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기능을 통합하고, 해외 비행훈련

다들머민주당 민행배(광산) 국회의원은 26일 “광주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비행훈련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공군 훈련비행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의원은 광주공항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고, 광주군공항과 광주 31사단을 동시에 전남지역에 이전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광주 군 공항 소음은 대부분 훈련 비행시에 발생한다”면서 “지난 2024년도 이륙비행 9100회 중 훈련 비행 8800회로 소음 발생량의 96%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의원은 광주 군공항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공군 기지 등을 임대해 조종사 양성 훈련비행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2010년 광산구청장 재임 중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국방 비서관을 찾아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광산구, 국토부, 국방부 간 6자 협의회를 제안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군 비행훈련의 해외 이전 사업인 IMFACC(International Military Flight Training Center Consortium·임팩)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할 정도로 타당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처음에 국제 비행 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간 130억에

이전을 통해 훈련비행 소음문제를 제거한 광주 군공항 및 31사단은 전남권 내 희망 지역 공모제를 통해 동시 이전을 추진하자는 방안이다.

민 의원은 “군사복합시설 유치 지역공모를 통해 광주 북구 31사단, 평동 포사격 시설 등을 전남에 이전하면 광주의 공간 혁신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민 의원은 전문가들과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광주 도심에 군 공항이 그대로 있으면 대략 10만명 정도가 피해를 본다. 75웨클 이상부터 피해가 되는데 법적으로 보상되는 기준이 85웨클 이상이다”면서 “무안공항으로 가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그래서 85웨클 이상 되는 범주는 3-5km 반경에서 현재 무안공항을 기준으로 보면 대개 적게 보면 한 800-900명, 많게는 1600-1700명 정도가 피해 범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강조한 테스크포스(TF)가 소음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광주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 “정부 주도로 풀겠다”고 밝혔고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TF를 대통령실에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하철 2호선 공사구간 도로 12월 정상화

백운동·운천저수지 구간 암석 발견 개통시점 2027년 이후로 연장될 듯

올해 연말에는 광주시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도로 통제가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26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10월까지 도로 개방을 하기로 한 약속을 못지키게 돼 죄송하다”면서 “늦어도 12월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일부 구간에서 대량의 암석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인 백운동 구간과 운천저수지 구간에서 대량의 암석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두 곳에서 발견된 암석은 덤프 트럭 3700여대 분량에 해당한다.

당초 공사에서는 암석이 발견되면 발파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이번에 발견된 암석의 경우 발파방식은 불가능하고 쪼개기 방식으로 공사를 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돼 공기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쪼개기 방식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공사 기법 등을 실험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수개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구간에서는 쪼개기 방식으로 암석 제거를 진행해 전체적인 공사가 늦어지게 됐고 급호지구의 경우 야간공사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어 공기가 늦어졌다

광주시는 더 안전하고 빠른 속도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복곡판(공사 현장을 덮는 철제형 덮개)을 제거하는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실제 도로 높낮이가 다른 단차, 잦은 교통차선 변경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결국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시점은 2027년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오영걸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광주시의회 결산심사에서 “도시철도 공정 재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올 6월 안에 도시철도 공사 진행 완료시점과 개통시기를 시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말 완공 후 시운전을 거쳐 2026년 12월 개통할 계획이 틀어지게 된 셈이다.

광주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철도 공사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시민안전실을 개편해 ‘안전·민원·공정 종합상황실’을 두고 도시철도 공사의 전 과정을 총괄히 점검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점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정)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화기 사용 이렇게 하세요” 26일 광주 북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우산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북구는 오는 9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23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헌재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

국세청장 임광현...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지명



김상환

오영준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

혔다.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협 수위에 달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

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우수기관 선정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제14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202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결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인천·부산 진해·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평가는 매년 9개 경제자유구역(광주,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

북, 울산)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년도 경영 관리와 단위 개발 사업자구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광주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 3년 만에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을 기록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고, 유공자 포상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